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4

2021 April
Vol. 291

우리의 잠재력



우리금융그룹

우리의



잠재력

우리은행 WOORI BANK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4

2021 April Vol. 291

제15기 <우리가족> 편집위원

김선형 테헤란로금융센터 계장
 김현정 서초남지점 계장
 박영선 삼풍지점 계장
 이다솔 신중동역지점 계장
 이웅기 대치남지점 계장
 이해주 상동역지점 계장
 임지현 삼성로지점 계장
 조은빈 해화동지점 계장
 조재민 구로디지털밸리지점 계장
 황상현 인사부(따건) 대리

발행일 2021년 4월 15일
 창간일 1998년 12월 1일
 발행인 권광석
 편집인 황선우
 발행처 (주)우리은행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44
 담당자 브랜드전략팀 박해철 과장(02-2002-3952)
 기획+디자인 (주)이팝
 인쇄 엔투디프린텍



SPECIAL THEME

03	<u>스페셜 테마</u>	자기계발
04	<u>스페셜 에세이</u>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자기계발
06	<u>스페셜 리포트</u>	매일 성장하는 우리가족, 자기계발

10	<u>WOORI NEWS</u>	우리은행 뉴스
14	<u>우리가족에게</u>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
18	<u>WOORI 人 SIDE</u>	'우리'의 새로운 바람 우리금융캐피탈
20	<u>디지털 나들이</u>	AI-POWERED BANK로의 도약
22	<u>우리메신저</u>	우리가족 마음 특!
24	<u>우리의 온도</u>	우리동네 좋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26	<u>함께 꾸는 DREAM</u>	내 손 안의 푸른 정원 같이 동기가 주는 힘과 용기
30	<u>꽃피우리</u>	수사를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 정도였습니다
32	<u>여행잘아行</u>	지금 여기, 한옥스테이
36	<u>心の한手</u>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38	<u>바른 건강 상식</u>	운동부족도 병이 된다고요? 현대인을 위한 운동 처방전
40	<u>두근 DO GOOD</u>	방심은 금물 안전사고 급증하는 계절, 봄
42	<u>마음쉽포</u>	엄마와 방 정리
43	<u>편집실 통신</u>	

스페셜 테마



자기계발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미래를 위해
 성공보다 성장으로, 자신만의 스토리 플롯을 만들어 가는 일.

현재의 자기계발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삶을 지향한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식의 업그레이드.
 나를 더 생각하고,
 내가 조절한 속도로 미래를 향해 혹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기에!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자기계발

글: 김진철(한겨레신문 문화부 책임성립장)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서’의 유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와 이에 따른 ‘각자도생’의 장이 열리던 때다. ‘메가히트’를 친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영사, 1994)이 대표적인 자기계발서이다. 이 책은 1994년 국내에 출간되었는데 정작 불타나듯 팔린 것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였다. 개인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의 종류와 실천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은 38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1,500만 부 넘게 팔렸다.

그로부터 꽤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성공’과 ‘습관’이라는 키워드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자기계발서의 제목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다. 긍정, 기술, 용기, 비밀, 아침, 관계 등도 자기계발서의 표지를 장식하는 키워드들이다. 불평등의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위기감을 높이는 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이 각자도생의 고민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투자지침서나 ‘힐링’심리학과 더불어 자기계발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자기계발은 ‘잠재하는 자기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흔히 자기개발과 혼동되기도 한다. 글씨 모양도 발음도 비슷한 탓이다. 자기개발은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째(계)는 ‘일깨우다’는 뜻이고, 關(개)는 ‘연다’, ‘깨우친다’는 뜻이다. 굳이 둘의 차이를 견주자면, 자기계발은 잠재된 능력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자기개발은 이미 갖춘 능력을 더 끌어올린다는 뜻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

자기계발서는 잠재되어 있을지 모를 능력을 일깨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자기계발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비법을 가르치고 이를 위해 습관이나 시간 활용을 강조한다.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알려준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는 잘 다루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습관이며 시간 활용인지, 나를 관리하고 남과 좋은 관계를 맺어

작가소개 김진철

2002년 입사한 한겨레신문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부서를 헤매다 옮겨다녔다. 2010년 경제·인문 분야의 책 두 권을 펴냈고, 기자 지망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왔다. 책 읽고 기사 쓰는 지금을 ‘화양연화’로 여기고 있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기계발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이 성공인지는 자기계발서가 알려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가 빠져 있는 셈이다.

자기계발서에 대한 이러한 의문의 실마리는, ‘통섭’의 주창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월슨의 <창의성의 기원>(사이언스북스, 2020)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창의성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이해”라는 대목에서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는 월슨의 말은 충분히 일반화되어야 한다. 자기이해는 삶의 목표일 것이다.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자기이해란 허영이나 망상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삶이 비단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먹는 생존,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투쟁의 과정으로만 여겨진다면 한순간 허무에 빠지기 십상 아닐까. 월슨은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운명이 앞으로의 역사적 궤적을 결정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이해라고 했다. 자기이해 없는 자기계발이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계발을 이룬다 해도 방향 없는 공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이해가 최종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 우리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더 많은 것을 살펴보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생의 목표이자 이유일 것이다. 물론 나와 우리, 세계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오가는 반복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다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 신화를 일군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을 ‘연결하는 것’(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이라고 정의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2년 전이었던 2005년 잡스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점들을 연결하기’(connecting the dots)라는 개념으로 창의성을 설명했다. 기존에 존재해온 휴대전화기와 MP3 플레이어,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연결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나아가 경험과 경험, 세계와 세계의 연결이기도 하다. 나와 다른 경험과 시각, 세계관을 지닌 타인과의 만남과 교류, 이해가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나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매일 성장하는 우리가족, 자기계발

직장인의 자기계발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도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연봉 상승을 위해, 능력을 더 인정받기 위한 목표로 해왔던 데 비해 현재는 자기 스스로의 나옴과 발전을 위해 자기계발을 합니다. 실제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는 2020년 업그레이드 인간의 준말인 '업글인간' 트렌드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족은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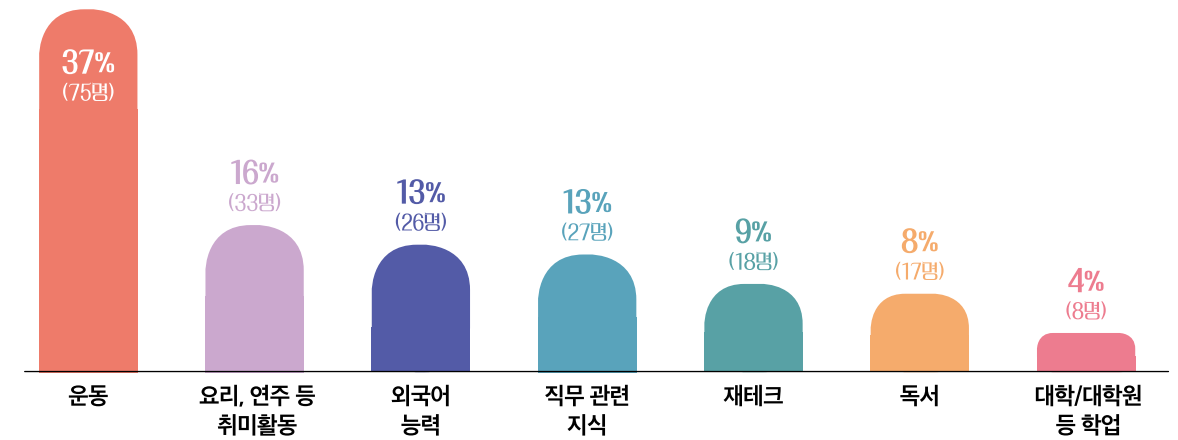
-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인원 우리가족 204명 • 조사기간 2021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 조사방법 행내포털에서 실시
 - 참여방법 행내 전체 게시판에서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 호에도 재미있는 설문으로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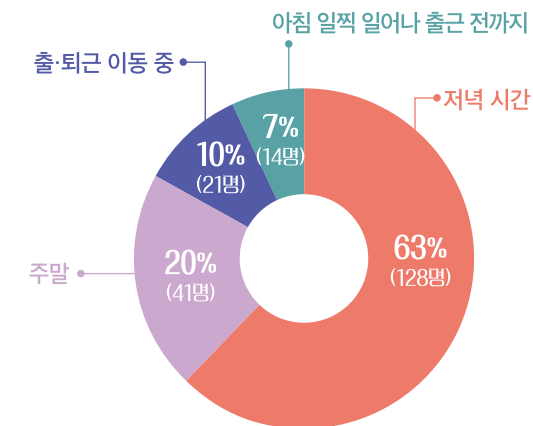
Question. 01 | 평소 자기계발을 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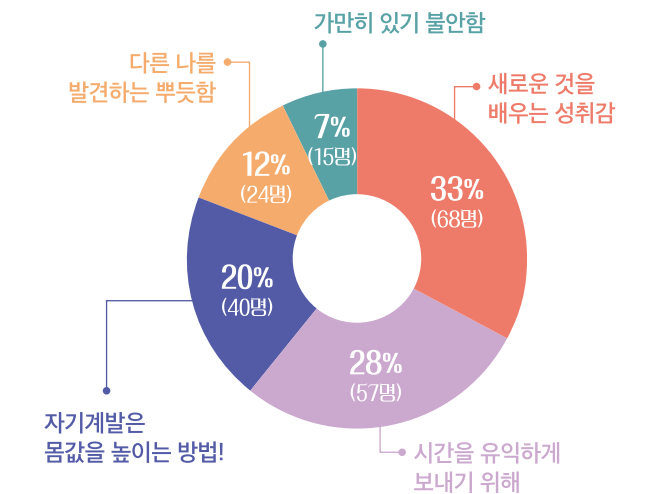
Question. 02 | 현재 자기계발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03 |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인가요?



Question. 04 |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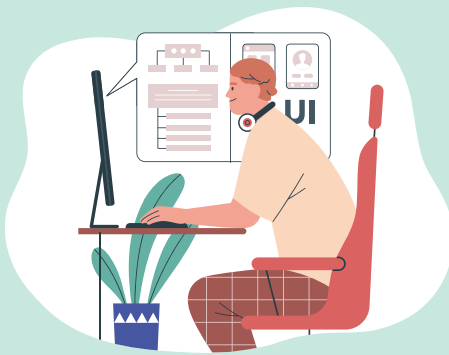


우리가족의 '아무튼, 자기계발'

자기계발이 막막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받는 자극은 때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족은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업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응원을 전합니다.

정리. 편집실

멋진 동료의 모습을 볼 때



- 공부, 대인관계, 가사일까지 잘 해내시는 지점장님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퇴근 후 운동하기를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 행내 도서실을 이용해 꾸준히 독서를 하는 동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도 행내 도서실을 이용합니다.
- '열정 Share' 게시판의 글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컨설팅 업체의 어려운 보고서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부분에서 자칫 수동적이기 쉬운 은행 생활에 능동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극을 크게 받았습니다.
- 취미, 운동, 레저 등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부캐(부캐릭터)' 동료를 볼 때 부럽기도 하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 달리기, 테니스 등 운동모임을 통해 나와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보면 자극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은행원으로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은행 선배이자, 거래처 사장님~ 잘 계시죠?"

가장 가까이, 가족으로부터의 자극

- 아이가 악기 배우기를 시작했길래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악기만 만지면 스트레스가 마구 풀리는 것에 자극을 받아 퇴근 후 연습도 하고 주말 레슨을 받는 중입니다.
- 아이들이 엄마의 자기계발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출퇴근 시간 짬짬히 인강으로 직무 관련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이니까 유일한 자극은 '나'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반응이 느려지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55세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오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이루려면 첫째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껴 아침 독서, 외국어와 한자공부, 운동, 자기 전 글쓰기, 꿈노트 등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 나이가 저보다 젊은 지인이 목표를 이룬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뭐 했냐'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정말 가기 싫은 운동이지만, 하고 난 후의 성취감 하나만 바라보고 실행 중입니다.
- 'E-HR'의 자격증 칸을 보며 한칸 한칸 채워나갈 때 기쁨을 느끼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퇴근 시간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찾아보고 있어요.
- 나이가 드니 유독 건강이 신경 쓰입니다. 출퇴근, 점심시간을 활용해 생활 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차니즘을 경계하라, 일단 움직이고 지를 것!"
-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가 주짓수 운동이라는 새로움을 통해 하루를 기대하게 됨을 느꼈을 때 자극을 받았습니다.

유명인의 자기계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너에게도!

- 인간은 모두 같은 24시간을 사는데, 같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 김미경 강사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자극을 받았어요. 공부건, 취미생활이건 주말 시간을 열심히 활용합니다.
- 김유진 변호사의 '미래클 모닝'을 접한 후 자극을 받아, 주말이라도 이른 새벽 러닝 후 샤워, 독서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CEO 동정

2021. 03. 02

디지털혁신 우수직원 시상



2021. 03. 04

(주)포스코건설 ESG 업무협약



2021. 03. 09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방문



2021. 03. 22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우수직원 시상



2021. 03. 24

InnoThink 2.0 발대식



2021. 03. 25

마이데이터 개발진 격려 방문



2021. 03. 25

오산 세교 지식산업센터 VG 협업 현장 방문



2021. 03. 30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청년자영업자 멘토·멘티 결연식



2021. 03. 31

디지털 혁신 포럼



WOORI NEWS

1 우리금융, '선한 가게' 선발 소상공인 100명에 생활자금 등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나눔, 기부, 봉사활동 등 선한 행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 100곳을 '우리동네 선(善)한 가게'로 선발해 긴급 생활자금, 홍보·마케팅 지원을 시작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선정된 소상공인 100곳을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최대 100만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선한 가게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을 활용한 가게별 맞춤형 디지털포스터 홍보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앱 'WON뱅킹'을 통한 홍보 ▲우리카드 오픈마켓 플랫폼 '위비마켓'을 활용한 '우리동네 좋은 가게 기획전'을 펼칠 예정이다.

2 걸음 기부 캠페인 1억 걸음, 기부 달성

우리은행은 3월 한 달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걸음 기부 사회공헌활동인 '우리가족 걸음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앱 '빅워크'를 설치한 후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3월 한 달간 걸음 수를 측정하는 캠페인으로, 임직원의 1걸음에 1원씩 적립되며 기부 적립 목표인 1억 걸음을 달성해 1억 원을 환경단체에 기부하게 됐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걷기왕 등 FUNTACT(펀택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힘든 상황에서 임직원 건강증진은 물론, 자발적 참여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전했다.



3 개인신용대출 신규 신청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시행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영업점에서 개인신용대출 신규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네 종류의 행정서류를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별도의 종이서류 제출 없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행정서류 직접 발급이 번거로운 고객은 서류 지참 없이 영업점을 방문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4 우리금융저축은행 지주 회사사 편입 결의

우리금융지주는 3월 5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회사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사사 편입을 마무리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회사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회사사 편입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 및 경영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게 됐다.



5 **우리금융, 2021 디노랩 스타트업 모집**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할 통합 2기 기업을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공모는 자회사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핀테크 분야는 물론, AI, 데이터, 블록체인, 생활금융 플랫폼, 인증 등 디지털뉴딜 및 ESG 분야까지 확대됐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디노랩을 그룹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고,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자산신탁,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지난해에만 스타트업과 총 7건의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협력을 추진해왔다. 한편, 디노랩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은 총 54개 기업이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출시 두달 만에 5,000건 돌파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출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한 보험금 청구가 출시 2주 만에 1,200건, 두 달 만에 5,000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단서 등 종이서류 없이도 모바일뱅킹 앱 WON뱅킹을 통해 ▲병원비 ▲치과 의료비 ▲약제비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실손보험금 전용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WON뱅킹'을 통해 여러 보험사 실손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하며, 우리은행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WON뱅킹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단기간에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UI/UX 개선 등 고도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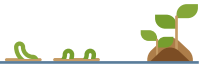


7 **AI로 맞춤형 상품 권유 고객 '즉시 가입 네 배 증가'**

우리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고객 행동패턴 기반 개인화 마케팅'으로 상담 즉시 가입한 고객이 네 배 증가했다고 지난 3월 18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시한 '고객 행동패턴 기반 개인화 마케팅'은 고객의 나이, 직업 및 라이프스타일 등 고객성향과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추천된 상품을 전화나 LMS(장문메시지) 등 비대면채널로 고객에게 권유 시, 즉시 가입한 고객이 기존보다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담 후 일주일 이내 비대면채널 신규가입 건수도 상품군별로 약 12~26% 이상 증가했다.

8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1 다문화단체 지원사업 실시**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1년 다문화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다문화단체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 3,000만 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웹캠, 마이크 등 기기와 줌(Zoom) 이용권을 구성한 교육 키트 ▲디자인 플랫폼 이용권 ▲다문화가족 대상 취업/창업, 디지털/미디어, 환경 등의 분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사업비다. 신청자격은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며,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관에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총 4개 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9 **우리금융, 주총서 배당가능이익 확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 26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본사에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은 제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재원 확대를 위해 4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향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새로운 비전으로, '혁신과 효율성 기반 그룹 경쟁력 강화'를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10 **우리금융지주, ESG채권 2,000억 원 발행 성공**

우리금융지주는 2,0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 형태 ESG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은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로서, 지난 3월 30일에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유효 수요가 몰려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해 내달 8일에 발행하기로 결정됐다.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발행됨으로써 그룹의 자본적정성도 약 10bp가량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지주사 출범 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스프레드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11 **우리카드, 2억 달러 규모 해외 ESG채권 발행**

우리카드는 중소·영세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해 미화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ESG 채권을 발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의 ESG 포모사본드이자 우리카드 최초의 공모사채 발행이다. 만기는 5년으로 금리는 USD Treasury 5년물에 1.00%를 가산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이번 채권은 LIBOR 페지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의 포모사시장 고정금리채권으로서의 첫 발행이며, 조달된 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정산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12 **우리금융캐피탈, 뉴 익스페디션 출시 기념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포드 파이낸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은 '뉴 익스페디션' 출시를 기념해 할부나 리스로 차량 구입 시 무상수리 서비스 '스마트 리페어(Smart repair)'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포드파이낸셜서비스의 할부, 리스를 이용해 구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포드 '뉴 익스페디션'을 할부로 구매 시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하다. 할부 구매 첫 달부터 35개월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36개월 차에 일시상환 하는 유예할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할부뿐만 아니라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도 '스마트 리페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포드파이낸셜서비스 '스마트 리페어' 프로그램은 차량 외부의 경미한 손상인 사이드 미러, 범퍼 스크래치, 외장차체 등의 덴트, 도어손상(문콕) 등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보험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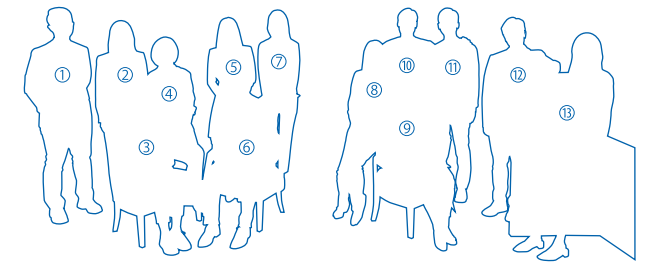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

동부영업본부 토평지점

직원들의 눈빛마다 자신감과 희망의 기운이 역력하다.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이들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새로운 기운이 일궈갈 가능성과 기대로 충만한 곳, 바로 토평지점이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 ① 박세민 매니저
- ② 정경주 대리
- ③ 안경선 계장
- ④ 김윤경 차장
- ⑤ 서문숙 과장
- ⑥ 배연수 지점장
- ⑦ 조은희 과장
- ⑧ 구혜은 대리
- ⑨ 임유순 부지점장
- ⑩ 김학식 차장
- ⑪ 이동훈 대리
- ⑫ 박찬규 부지점장
- ⑬ 문지영 계장



*사진촬영은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초체력'을 쌓는 영업

토평지점은 배'아'임수에 위치해 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명당자리를 일컫는 말에서 따온 '아파트를 등지고 호수를 바라보는' 토평지점의 영업환경을 빛낸 이야기다. 토평지점은 실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위치해 있다.

"토평지점 반경 500m 내에 8,500세대와 장자호수공원이 형성돼 있어 배산임수가 아니라 배아임수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강변북로 나들목과도 가까워 경기도와 서울 생활권이 모두 가능한 곳이라 기업영업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까지 진출하곤 하죠. 지난해에는 경쟁 타행들이 지점을 철수해 은행은 우리 토평지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촘촘하게 영업 기반을 만드는, '기초체력'을 쌓는营业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배연수 지점장이 말하는 토평지점의 현재 영업 방향은 고객 기반 확대다. 지역 고객 유치를 통해 타행 이용 고객을 흡수해 거래량을 늘리고, 고객 경험을 높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점 사항이다. 직원들은 고객 기반 확대 속에서 '자기주도영업'을 적용해 직원 개개인의 영업 전략도 수립하고 실천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상담 고객님이 내방하시면 하나의 여신만으로 마무리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금 수효는 어떻게 생길 것인지를 판단해 2~3년 이상 해당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평지점의 '자기주도영업'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즐거움을 동반한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어려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 깨달은 진리는 진정한 내 것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기본의 기본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시점

토평지점은 여신과 수신의 단위가 큰 몇 개의 기업고객보다 입지 조건에 충실하게 개인고객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고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세심하고 어려운 일일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친절함으로 무장하고, '금융마스터'를 표방하며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가 빛을 발해 2020년 상·하반기 KPI 그룹 소속 2등을 차지해 전년 대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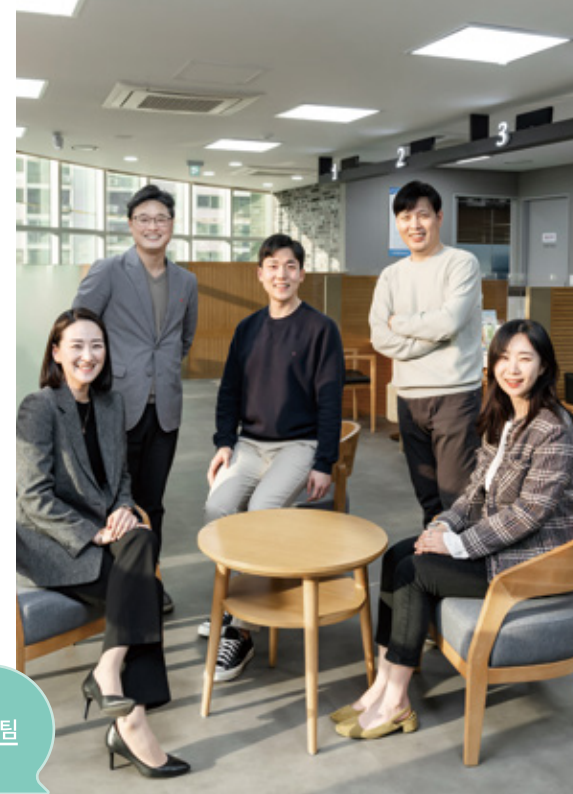
임유순 부지점장은 "고객님 대부분이 개인 자산의 여유가 있는 고령층이예요. 고객 특성을 반영한 투자상품을 권유, 유치하면서 상품을 다양하게 소개해 비이자 실적도 쌓아가는 중입니다. 또, 개인고객으로 오셨다가 기업 대출까지 이끌어 낼 만큼 내방하시는 고객님의 특성을 파악하고 스테디함으로써 영업 다변화와 확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지역(동네) 주민들이 모두가 잠재 고객인 이상 결국 친절로 점철된 입소문만이 영업의 핵심, 기본의 기본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룹 KPI만큼이나 토평지점은 CS KPI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은행 토평지점에 가면 업무 처리를 잘 해 준다고 입소문이 나면 '토평지점'만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입소문으로도 발전하게 되지요.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때 지점만이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 고객이 찾아오게 되면서 지점과 개인 동시에 영업기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금팀



중상팀

좋은 분위기가 동기부여로 이어져

배연수 지점장이 함께 강조하는 것은 자기계발, 역량강화다. 이는 어느 지점장이 강조하지 않아도, 개개인들이 더욱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배연수 지점장이 다른 부분은 금융 관련 스테디, 자격증 공부 등을 적극 권장하며 방향을 제시하며, 실제 '퇴근 시간 눈치 보지 않기' 등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훈 대리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눈치를 안보게끔 지점장님부터 팀장님들 모두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계세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직장생활에서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객장 리모델링 이후 환경이 달라지고 내부적인 분위기도 달라지니 성적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토평지점이 위치한 건물 안내판을 보면 1, 2, 3층에 모두 '우리은행'이라고 안내돼 있다. 1층에는 자동화기기 코너가, 2층에는 예금팀과 투체어스팀, 3층에는 중상팀이 자리한다. 리모델링 이전에는 각 층에 가려면 외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같은 지점이지만 층이 나뉘어 객장이 분리됐던 상황. 지점 직원은 물론이고 고객들은 더더욱 업무 진행에 불편함을 느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 3층은 내부에서 층을 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든 것이다.

박찬규 부지점장은 "재작년 리모델링 이후 달라진 내부부의 분위기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걸 모두가 확인했죠. 결론적으로 역량강화가 영업확대로 이어졌고요. 영업을 순조로우니 부담감도 줄고, 직원 스스로 성취감을 쌓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행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투체어스팀

잠재된 성장 가능성을 향하여

토평지점은 어느 지점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객장에 고객이 몰릴 때면 팀과 업무 구분없이 서로를 돕는다.

"우리 직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청춘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솔선수범하는 팀장들과 팀장 못지않은 역량을 갖추고, 갖추려고 노력하는 팀원들이 있는 곳이지. 지점장이라면 고민이 많은 인적 구성도 훌륭한 지점이지요, 저는 토평지점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 영업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토평지점은 2등에서 올해 '5등급'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고 있다. 강압적으로 지시에 의해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에, 그래서 더 꾸준히, 오래, 멀리갈 수 있으리라.



고객도, 인재도 찾아오는 곳! 솔선수범하는 팀장들과 '해봅시다' 한마디에 따라와 주고 의견을 나누는 직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배연수 지점장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의 새로운 바람

우리금융캐피탈



김민경
우리금융캐피탈 시너지기획팀 매니저

올 초 우리금융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금융캐피탈은 그룹 시너지 디지털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특히 그룹사 간 공동영업으로 성장의 가속화를 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캐피탈이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 왔던 자동차 전용 금융상품 등 캐피탈 특화 상품으로 ‘도탈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경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시행 중인 공동영업을 통한 시너지 연계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시너지기획팀 김민경 매니저를 통해 들어보았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시너지기획팀 김민경 매니저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시너지 부문 성과 달성을 위해 올해 시너지금융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룹 내 자회사의 기업/투자 금융영업을 담당하는 시너지영업팀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너지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너지 기획팀에서는 그룹 내 시너지 전략수립 업무와 시너지 신사업 발굴, 공동영업 활성화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인수 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금융그룹의 업계 시장지위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사들이 있어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영업 현장에서는 우리금융그룹 브랜드를 사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 경쟁력과 고객 신뢰도 이 두 가지가 높아진 것을 가장 큰 변화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의 공동영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은행과의 공동영업은 은행지점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금융·신용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대면 공동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상품을 우리은행 지점 대상의 대면 공동영업에 맞게 리뉴얼한 상태입니다. 시너지기획팀은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고객반응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WON뱅킹 앱 내 신용대출 다이렉트 상품 연계 서비스가 최근 개시되어, 상반기 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이 높은 공동영업 상품의 강점이 궁금합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자동차와 개인금융 상품에 대한 오랜 업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 안내와 신속한 대출 진행 프로세스가 강점인 회사입니다. 이러한 강점은 우리은행과의 공동영업 상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부분에서는 오랜 업력의 노하우를 살려 최근 고가의 차량과 운송, 상용산업 차량까지 기존보다 더 많은 한도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신속한 상담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대출의 경우 폭넓은 고객 수용과 한도 체계화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공동영업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공동영업 강화에 있어 올 한 해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요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금융캐피탈 공동영업에 대한 그룹 내 인지도 제고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우리금융캐피탈 공동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은행 직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캐피탈 공동영업 인지도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영업을 위한 우리금융캐피탈 내부 역량강화입니다. 은행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동영업 상품 라인업을 개발하고 각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공동영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개시한 WON뱅킹 앱 내 신용대출 다이렉트 상품 연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향후 취급상품 범위와 대상고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과 공동영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여기고, 고객과 우리은행의 니즈에 발맞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다각화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영업 구조를 확고히 구축하고 우리금융캐피탈이 빠른 시일 안에 그룹 내 시너지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룹사들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은행과의 공동영업뿐만 아니라 카드,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자회사와 연계 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고객만족 확대와 회사수익과 가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영업적 부분 외에도 여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활발히 공유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 우리금융캐피탈이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사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우리은행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DATA

딥러닝(AI)

예측

AI 기반 예측 모델링 활용사례

AI-POWERED BANK로의 도약

정리, 브렌드ESG그룹 박해철 과장 자료 제공, AI사업부

현대 사회의 분석시스템은 통계기반의 해석 분석에서, AI 모델기반의 예측 분석으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의 시스템적인 예시를 들자면 우수고객 관리(해석)의 관점에서 비대면 채널 가망고객(예측)의 관점으로 발전하고, 기업잔단 및 금융사기 모니터링(해석)에서 기업여신 위험관리(예측)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예측 모델링’이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경험(데이터)으로부터 학습하여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를 추가해 정의하자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미래의 행동과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데이터 수집, 통계적 모형 설정, 예측 수립, 모형 검증 및 수정 등의 과정을 통한 모형 작업이며 결과적으로 간단한 1차 방정식 모형에서부터 고도의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복잡한 신경망 모형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모델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예측 모델링 활용사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예측 모델링 활용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다중이용시설의 공간 및 개별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모델링하여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건설사는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재해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재해 예측 AI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를 이용,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행복도를 수치화하는 감정 AI 기술도 한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예측 모델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딥러닝 분석으로 고객 대응방안 마련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예측 모델링을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 있다. 먼저 금융상품 해지나 타행 전환 예측 고객을 사전 선별해 고객의 이탈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공시 정보 및 경제, 산업정보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투자 대상 기업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는 등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입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예측해 마케팅을 적용하거나, 웹과 앱 내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패턴분석해 고객의 상담콜이 예측되는 시점에 선제적인 아웃바운딩 콜을 수행하는 등의 관리도 예측 모델링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20년 간 10만 종의 지표와 기사 등의 비정형 데이터 활용

당행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AI 기반 시장 예측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과거 20년 간 10만 종의 시장지표와 뉴스 기사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통해 주가 지수, 채권 가격, 금 가격, 원달러 환율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 및 전망하고, 예측 지수, 채권, 환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산의 배분을 결정하며 예측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글로벌 23만개 상품을 평가 및 선정,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업무 전문가에 의한 방식에 비해 활용하는 시장/결제지표가 10만 종류 이상 늘어나고, 250종 이상의 비정형지표가 활용되는 등 보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시장을 예측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작업에 의한 수집 및 관리에서 벗어나, 전면 자동화 시뮬레이션으로 리포트를 적시에 발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수 있다. 분석상품의 부분에서도 운용사 제안상품 내에서의 분석에서, 글로벌 전 상품을 대상으로 분모가 확장된다.

AI 선도, 발굴과 파트너십 등 과제 남아

위와 같은 시장 예측 시스템은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인력 확보전략을 통해 보다 고도화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정보나 신용, 채무 데이터 등의 과거 이력과 경제적 변동 요인들로 다음달, 혹은 몇 개월 후의 기업 신용리스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등을 후속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I를 선도하는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AI-Powered Bank 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다. ☺

우리가족 마음톡!



우리가족끼리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메신저!

받는 분에게 메시지와 커피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족에게는 우리가족의 응원이 보약입니다.

To. 오산금융센터 김다정 계장

사랑하는 다정아
자주 메시지를 하지만 너에게 커피를 보내주고 싶어 ^^
같이 있는 동안 충분히 잘해주지 못 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금 멀리 있지만 김복춘 과장과 나는 다정이 생각을 자주 해. 건강하고 곧 만나자~



From
글로벌영업추진부 김현정 과장

To. 발산역금융센터 강지혜 주임



이쁜 지혜야^^
작년 10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식 잘 마치고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요즘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은데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널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From
손은영 일상풍동지점 과장

To. 안양금융센터 이호양 부지점장

항상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셨던 이부님!!
인사 이동으로 근무지가 멀어졌지만 항상 마음은 이부님과 함께입니다!
승승장구하시고 몸 건강하세요~!!!



From
서교중앙금융센터 김민정 대리

To. 원주중앙지점 이태영 과장

지금 나의 가장 든든한 뺨!!! 탕과장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모든 걸 믿어주고 응원해 줘서 항상 고마워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팀워크는 과장님이 우릴 다 잘 이끌어주고 아껴줘서가 아닐까 싶어요.
커피 한 잔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몇 천 배 만큼인 제 마음을 전달해봅니다.



From
원주중앙지점 김연숙 대리

To. 대전북지점 김희정 부지점장

지금까지 이런 팀장님은 없었다.
이분은 팀장인가 친언니인가...
(극한직업 멘트 좀 따라했습니다.)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해결해주시고, 항상 같이 고민해주시고 또 접하기 어려운 상품들 쉽게 쉽게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 받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부님 알게 된 게 제 은행생활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한 마음 등백 담아 따뜻한 커피 한 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From
천안중앙금융센터 김선희 대리

To. 신월동지점 이민정 과장



민정언니 벌써 우리가 같이 해외연수 다녀온 지 2년이 지나네^^ 4월이 되면 나는 늘 언니가 떠올라~ 같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 좋은 사람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 비록 코로나와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보고싶다는 거^^ 우리 올해는 꼭 만나자. 늘 건강하고 사랑해 언니^^

From
위례지점 이경민 대리

To. 범일동지점 김은선 계장

사랑하는 은선아!
잘지내지? 나에게 있어 친정같은 범일동지점에서 만난 우리 은선이는 힘든 일 곳은 일도 묵묵히 잘 해내고 얼굴까지 이쁜 아이였어.
언니가 인사이동 나기 전 마지막 함께했던 우리 창구에서 4개월간의 시간들은 재밌고 좋은 추억들로만 가득하단다.
언제나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워아이니!!

From
부곡동지점 이유정 대리

To. 한경미디어지점 권문숙 과장

언니~ 보내준 약 잘 먹게요~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언니의 마음은 변치 않네요^^ 우리 언니 짱!!



From
신림남부지점 주진희 계장

To. 구월동지점 소현희 차장

9년이 지나도 영원한 '우리 언니'~ 고졸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에 저 데릴러 오신 게 잊고제 같은데 벌써 지점도 네 번이나 옮겼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또 연락할게요♥



From
상동역지점 김현경 계장

To. 만수동금융센터 이지훈 계장



계장님, 입학 첫 달에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바쁜 와중에도 매번 시간 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다른 곳으로 파견 와있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이 배워가서 그때는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더욱 화이팅입니다~~~

From
만수동금융센터 이종민 수습행원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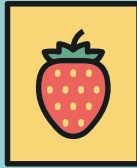
매달 행내 포털 전체 게시판에서 '우리메신저' 팝업창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다음호에도 우리가족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좋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동네 좋은 가게'

글: ESG기획부 이주연 차장



소상공인 지원 '우리동네 좋은 가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눠준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그맨 유재석까지 방송을 통해 사장님을 '돈쫄'내는 일에 함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눠준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그맨 유재석 씨까지 합세해, 해당 치킨집을 '돈쫄' 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나눔, 기부, 봉사활동 등 선한 행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 즉 '선(善)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우리동네 좋은 가게' 사업으로 '돈쫄내기 행렬'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돈쫄 : '돈'+'흔쫄'의 의미로, '흔쫄내다'란 기존 부정적 의미와 달리, 좋은 가게의 매상을 올려 준다는 역설적 표현이 담긴 신조어



좋은가게, 우리가족과 함께 해요

선발된 곳에는 3월 중순 1차 생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오는 6월 2차 생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좋은 가게' 개별로 제작된 디지털포스터를 가게 인근에 위치한 우리은행 영업점에 게시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지역 내 '좋은 가게'를 홍보하고, WON뱅킹 내 '우리동네 좋은 가게' 메뉴를 신설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카드 위비마켓에서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우리동네 좋은 가게'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가게'들의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 할인 쿠폰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돈쫄'내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돈쫄'이 필요한 100곳

우리동네 좋은가게는 작년 12월부터 모집을 실시했으며, 지난 2021년 2월, 사회적 미담 사례로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이슈가 되었던 결식아동들과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홍대 '진짜 파스타'를 비롯해, 결혼아동과 저소득 가정에 안경 제작과 무료 시력검사를 지원하는 신촌 'EYE OH 안경점',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을 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 시흥 '구이가' 등 총 100곳을 '우리동네 좋은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주변에 선한가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돈쫄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좋은 가게' 목록은 온라인 사이트 www.woorigoodstore.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이트 메뉴에서 '우리동네 좋은 맵'을 통해 좋은 가게 위치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김혜석
광희동금용센터 계장

김예은
성북구청지점 계장

서민정
성북구청지점 계장

내 손 안의 푸른 정원 같이 동기가 주는 힘과 용기



Terrarium

사회생활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천만금의 재물을 얻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이다. 입학 동기인 서민정 계장, 김예은 계장, 김혜석 계장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다름없다. 생애 첫 테라리움 만들기에 도전한 날, 셋이 함께 했기에 더욱 잊을 수 없는, 봄 빛깔 가득했던 시간을 공개한다.

글. 이은정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사랑하는 동기들과의 첫 도전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토요일 오전, 휴일의 느긋한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차례대로 화원에 도착한 서민정 계장, 김예은 계장, 김혜석 계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요즘, 생애 첫 테라리움 만들기를 애정하는 동기들과 함께 한다는 기대감 덕분이다.

“저희는 4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저와 예은 계장은 두 번째 발령 지점에서 처음 만났고 혜석 계장과 예은 계장은 연수원 시절에 같은 조였던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만연인 서민정 계장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셋의 관계를 설명한다. 닮은 듯 다른 듯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 통하는 점은 분명히 있었다. 바로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마음이다. 같은 시기에 입행을 해서 비슷하게 일을 배우며 업무를 하던 이들에게 서로만큼 든든한 지지자이자 지원자는 없었던 것.

“힘들 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기처럼 든든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라는 김예은 계장의 말을 김혜석 계장이 이어받는다. “뭘 물어봐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자기 일처럼 성심껏 도와주는 동기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테이블에 놓인 다섯종류의 작고 귀여운 다육이만큼이나 상큼한 웃음이 세 사람의 얼굴에 봄비처럼 촉촉하게 내린다.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리엄을 만들어볼 시간이다. 라틴어 'terra(땅)'와 'arium(공간)'의 합성어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을 넣어 재배하는 것을 일컫는 테라리엄은 식물을 기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늘 강의를 맡은 조현진 플로리스트가 “의외로 꼼꼼함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조금 힘들수도 있다”는 설명에 모두가 살짝 긴장을 한다.

개성대로, 취향대로 나만의 정원 가꾸기

두껍고 묵직한 유리용기와 다양한 컬러스톤들, 다섯가지 종류의 예쁜 다육이가 준비됐다. 먼저 조현진 강사의 안내에 따라 종이를 돌돌 말아 깔때기를 만들었다. 이 깔때기의 구멍을 통해 흙과 모래 등을 유리용기 안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섬세하게 흘러보낼 예정이다. “먼저 자갈을 1~2cm 정도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흰모래를 1cm 정도 채워주세요. 용기를 톡톡 치면서 자갈이 안 보이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야 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소리에 모두가 의욕적으로 눈을 빛낸다. 작은 화분에 담긴 다육이를 꺼내 뿌리를 정리하고 흙을 털어낸다. “다육이 뿌리는 처음 본다”라는 김예은 계장의 말에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보다 뿌리가 길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같다. 똑같이 신기해하고 똑같이 놀라는 해맑은 모습이 마치 중·고등학생 때 단짝들 같은 느낌이다.

각자의 정원을 꾸미느라 바쁘면서도 동기들의 작품을 같이 살펴주며 “흙을 뒤쪽에 좀 더 부어봐” “오! 너무 예쁘다” 등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세 사람. 평소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 보인다.

함께 해서 더 행복했던 시간

테라리엄이 점점 제법 그 모양을 갖춰갔다. 그리고 마침내 둥근 유리용기 안에서 완성된 테라리엄!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 나왔다. 김혜석 계장의 테라리엄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맵시를 자랑하고 서민정 계장의 테라리엄은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풍긴다. 김예은 계장의 작품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을 한껏 발산 중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정말 잘하셨다”라는 강사의 칭찬에 세 사람의 표정도 덩달아 확 피어난다.

“저는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정말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힘으로 만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강사님들이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재밌었습니다.” 서민정 계장이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활짝 웃는다. 김혜석 계장과 김예은 계장의 얼굴에도 역시 자신이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정원을 보는 시선에 큰 만족감이 피어오른다.

“그동안은 사실 식물이나 꽃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키워보기도 했지만 생각 보다 관리가 쉽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면서 가끔씩 물만 주면 잘 자란다는 다육이 테라리엄을 직접 만들어보니 큰 부담 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세 동기가 완성한 테라리엄에 각자 정성스럽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입을 모은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과 안에서 작은 식물과 함께 보낸 아주 특별했던 이 시간. 사랑하는 동기들과 함께 했기에 더 특별하고 소중한 이 순간이 이들의 치열한 삶에 작은 힘과 힐링으로 기억됐으리라 생각해 본다. ☺



MINI INTERVIEW



광희동금융센터
김혜석 계장

이런 자리에 초대해준 민정 언니한테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메신저로 늘 대화는 하지만 이렇게 셋이서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라 많이 반가웠어요. 어제까지 야근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테라리엄 만들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지점
김예은 계장

만든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닌, 두고 두고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었어요. 식물 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발랄하고 터프한 혜석이와 뭐든지 꼼꼼하게 잘하는 민정 언니의 매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MINI INTERVIEW



성북구청지점
서민정 계장

셋이서 원데이클래스를 함께 해보건 처음이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남을 주도한 입장에서 동생들이 모두 몰입하고 즐거워서 더 뿌듯했습니다. 다음에 또 뭔가를 함께 배워보고 싶어요.

모두가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웃고 떠들었던 분위기는 어느 순간 스크르 휘발되고 꽤 진지한 얼굴로 자갈과 모래를 만진다. 세 사람 모두 테라리엄 만들기는 처음, 이라며 행여 실수를 할까 움직이는 손끝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그 와중에 “스타키를 잘 키워보려고 매일 물을 줬다가 죽었다”는 서민정 계장의 말에 모두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검정 모래와 미색 모래도 순차적으로 깔아주니 유리병 밖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점점 그럴싸해진다. 마치 크림이 겹겹이 쌓인 케이크 같다. “이 모든 과정은 밀폐된 유리용기 안에서 배수가 잘 되야 하기 때문”이라는 강사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으로 마사토를 용기 한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부어줬다. 바로 이 부분에 다육이를 심는다는 소리에 모두가 더 넉넉하게 마사토를 붓는다.

“먼저 만세 선인장을 심어주세요.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어서 애칭으로 만세선인장으로 불리는데 이걸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다육이들을 심으면 돼요.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입체감 있게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주세요.”

“
수사를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

글: 김민선 사진: 주보균

안정은
가산디지털밸리지점 계장



고객 만족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경찰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 때문에
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을 찾았습니다.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정은 계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제 사연이
꼭 전해져서 은행 내에서

칭찬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입행해 지금은 가산디지털밸리지점 종상팀에서 기업 여신과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 대출 상담을 하며 큰 보람도 느끼고, 훌륭한 선배님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지점 막내 직원이기도 합니다.

Q 경찰관이 보내주신 사연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오후 5시 반 무렵 마감 후 퇴근을 준비하던 중, 경찰 두 분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업무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유료아이템(별풍선) 환전사기 등 대포통장 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우리 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아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저녁 약속도 있었지만 급한 상황이고, 타행에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찰관 분들 말씀에 CCTV 담당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저의 모습을 경찰관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저에 대한 칭찬을 남겨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Q 이번 칭찬을 계기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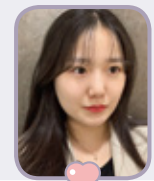
작은 업무라도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CCTV 담당업무는 작고, 귀찮은 잡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업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번호표를 뽑고 오시는 분만 고객이라 생각했는데 경찰관도, 피해자도 잠재적 고객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업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은행에서 만나는 어떤 누구든 '친절로 대할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은행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규정, 업무 방법서 숙지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지난 은행생활은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도 다양한 고객 응대시 친절함과 미소를 잃지 않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놓칠 수 없는 칭찬

“억울하게 당할뻔 한 한사람을
구해주셨어요”



칭찬 직원
김현숙 순천지점 주임

어느 사이트에서 제 돈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큰 돈을 이체 받았습시다. 하지만 전 이 돈이 보이스 피싱이나 피해자금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고 출금이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니 범죄자가 된 것 같았고, 더 큰일이 일어날까 며칠간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가 만난 분이 김현숙 주임님입니다. 울먹거리며 상황을 설명하자 김현숙 주임님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정지이의신청서 작성과 여러 질문, 유선 통화와 메일 문의에도 전부 친절하게 답해 주셨고,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대신 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일이 무사히 잘 풀리고 계좌도 새로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김현숙 주임님을 만나 행운이었고, 이런 분을 직원으로 뽑아주시는 우리은행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

지금 여기, 한옥스테이

어느 늦은 저녁 '영주 선비촌'에서 달빛만 고요한 골목을 걸어 하룻밤 묵을 방을 찾아가는데 마치 영화 속을 걷는 듯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보냈던 그 밤은 새소리,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가득해서 자연 속에 누워있는 듯 아주 포근했습니다. 그 날 이후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한옥스테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곤 합니다.

글, 사진, 여행지기(네이버 여행 블로거, @traveler_7000)

여행지의 하룻밤은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빌려서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아닌 곳에서 설렘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고 싶어서, 숙소를 고르는데 많은 공을 들여 꼼꼼하게 찾습니다. 하룻밤이지만 그 밤이 그 여행의 추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옥은 온갖 감각으로 여행지를 생생하게 떠올려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벼운 장지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온갖 소리들, 따스하게 찾아오는 햇살, 부드럽게 스며드는 맑은 공기, 온 몸을 노곤하게 만들어 주는 뜨끈한 아랫목, 달밤이면 방안 가득 신비로움을 전해주는 달빛까지 한옥의 방은 자연을 온 감각으로 느끼게 해 줍니다.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여행지마다 추억을 새겨둔 한옥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마음에 남은 세 곳을 떠올려 봅니다.



한옥에 녹아든 역사와 이야기

경상북도 안동은 참 좋아하는 여행지라서 계절마다 찾는 곳입니다. 안동에서도 가장 안동스런 곳이 어디일까 찾다가 알게 된 옥연정사(玉淵精舍), 맑고 푸른 물빛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안동의 하회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부용대에 자리한 옥연정사는 서애 류성룡 선생께서 <징비록(懲毖錄)>을 서술하신 곳입니다. 임진왜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징비록>을 서술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록을 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460여 년이 넘는 소나무가 지켜보는 옥연정사에서 내려다보는 하회마을 풍경은 정겨웠고, 종손께서 설명해주시는 옥연정사의 이야기가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 읽어 보는 <징비록> 몇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방안 깊숙이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었을 때, 쨍하게 맑은 공기가 마음까지 스며들었던 그 산뜻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15대 종부께서 차려내신 아침상은 미각으로 오래오래 남아 안동을 추억하게 해 줍니다.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생생하게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얻었던 곳입니다.



안동 옥연정사

•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술밭길 86
• 홈페이지 : www.okyeon.co.kr



99칸 한옥의 경험

청송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덕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택이 7채가 있어서 한옥 체험이 가능한데 99칸의 송소고택이 대표적입니다. 덕천 마을 내에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역사가 오래된 1914년 지어진 송정고택을 찾았는데, 2011년부터 한옥스테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냈었지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초대 총리를 지내신 철기 이범석 장군께서 머무셨다는 사랑방은 역사적 의미와 한옥의 아름다움이 정말 최고인 곳이었고, 제가 묵었던 곳은 안채의 중심인 안방입니다. 아늑한 안채의 편안함과 포근하면서도 이불, 정갈하게 도배된 방의 내부는 이 고택을 얼마나 큰 애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대로 알 수 있었고, 너무 아름다워 오랜 시간을 잘 지켜오시는 집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내어주시는 따스한 차 한잔은 여행자의 긴장감을 풀어 주었고, 다음 날 송정고택을 떠날 때는 보이지 않으실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셔서 몽클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치 고향을 찾았다가 정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감동이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룻밤이지만 추억으로는 아주 길게 남아있구나 싶어집니다. 마을길을 산책하던 그 저녁도 떠오르고, 붉게 물들어 가던 저녁노을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주었던 마을 풍경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송 송정고택

• 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1
• 블로그 : blog.naver.com/peacej3012

최참판댁 옆 한옥스테이

하동은 역시 '평사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봄의 생명력이 연두빛 물결로 피어나던 평사리의 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던 황금들판의 풍성한 가을은 하동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평사리' 명칭에서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사리는 바로 토지의 무대가 된 곳이니깐요. 그 곳에 박경리 문학관과 토지 드라마의 무대가 된 최참판댁이 있고, 문학관 위쪽에 자리한 올모스트홈스테이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한옥이지만 사용하기 편리하게 내부를 개조해서 한옥이 주는 불편함이 없애고, 한옥의 느낌은 그대로 가진 독특한 공간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한옥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찾으면 좋은 곳입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부엌과 식탁이 있어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체크인할 때 신청을 하면 하동의 특산물로 차려진 건강하고 맛있는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람 살랑이는 뒷마루에 앉아 아침상을 받으면 이런 것이 진짜 힐링이구나 싶어집니다. 아침을 먹고 조금 걸어 내려와 최참판댁 사랑채에 올라서서 평사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은 여행이 주는 감동의 정점에 오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

하동 올모스트홈스테이

• 주소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5
• 홈페이지 : www.stayfolio.com/findstay/almost-home-stay-hadong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기로 약속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PERSONAL RELATION

친절과 배려가 상처로 돌아온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가슴시린 이야기다. 훌쩍 털어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배신감과 서운함에 가슴앓이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리. 차지은
참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저, 21세기북스 출판)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자

언젠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진정한 자립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이유. 인정받고 싶어 시작한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즈음부터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서점을 채우기 시작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데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고 침울해지는 경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고 말한다.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고.

거절을 하면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워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만 관대한 사람 모두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다. 거절해도 괜찮다. 친절했던 사람이 거절을 했다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인 것이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착한 사람이고 싶었을 뿐인데,

이용만 당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도 패턴이 있다. 한 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을 계속 빼앗기게 된다. 이 패턴을 끊는 방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

상대가 원치 않은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타인에 대한 원망과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런 역할을 자처한 것은 아닐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 아니었는지를 말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신분으로 여긴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직을 거친다.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포지션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나 회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위 개념이며, 직업은 그것의 하위 개념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사실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해답은 나에게 있다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도 끝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인정욕구'라고 했다.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고, 타인이 부당한 요청을 할 때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무리하는 건가?'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

자존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성취에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할 문제다. 남의 인정어린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상처받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단단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



운동부족도 병이 된다고요?
현대인을 위한 운동 처방전

홈트 열풍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미디어에서도 연일 다양한 운동법이 쏟아진다. 아직까지도 먼 이야기로만 느껴진다고? '운동부족', '저질체력'이 자신의 이야기만 같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 것. 운동부족도 병이 된다니 말이다.

정리. 차지은 **참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의 30%가 운동부족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은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인구 비율이 58.8%로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운동부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이처럼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만성 성인병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를 운동부족병이라고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이 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심장협회(AHA), 미국질병예방센터(CDC)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중간 정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는데, 주 5일 운동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30분 정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에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 운동을 할 때는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가 효과적이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신체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 찾기

미국 심장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HR max = (220-나이))의 70~85% 정도가 적당하다. ex.) 60대 여성의 경우 (220-60) X 70~85% = 112~136

운동 직후 맥박수가 112~136 정도가 되면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

운동에도 처방이 필요하다.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기 때문. 무작정 유튜브를 보고 고강도 운동을 따라하기 보단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 좋다.

무릎이 약한 사람이라면 실내자전거, 트레드밀 걷기처럼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도 좋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의 5배 이상의 힘이 가해지므로 내려갈 때에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식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목과 허리가 좋지 않다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요가 동작이나 윗몸일으키기, 등산과 같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고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추천한다.

많은 사람들이 맨몸 스쿼트를 추천하는데, 이때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해야 부작용 없이 허리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와 자전거타기 등이 있다.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으로 운동부족을 탈출해 보자. 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도 잊지 마시길!

홈트 유튜버와 함께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홈트레이닝 법을 소개하는 홈트 유튜버와 함께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운동도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홈트 유튜버 중 초보들이 따라 하기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를 소개한다.

- **땅끄부부** -----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목표로 하는 땅끄부부는 홈트 유튜버의 원조 격.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옆집 부부와 함께 운동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특징이다.
- **피지컬 갤러리** -----
 체형교정과 재활 운동법, 운동 상식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특징.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스포츠 의학박사 등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운동에 관해서는 고퀄리티를 자랑한다.
- **요가소년** -----
 요가 유튜브의 정석. 차분하고 부드럽게 힐링 요가를 선보이는 요가 소년은 10분부터 1시간까지 다양한 길이의 영상을 구성해 업로드한다.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동작들도 별도로 제작해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따라 하기 좋다. ♡



방심은 금물

안전사고 급증하는
계절, 봄

봄은 포근하고 따뜻한 날들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유독 건조한 환절기인 탓에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산불, 황사, 환절기 감염병, 눈이 녹으면서 생기는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다.

정리. 편집실 참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보건협회



전기 감전 사고에 대비



국민안전처 재난 연감(2011~2015)에 따르면 감전 사고는 봄이 오는 3월부터 증가해 여름철에 절정에 달한다. 겨우내 난방기구로 인한 콘센트 사용이 잦았다면 봄을 맞아 콘센트를 정돈해보자. 노랗게 변색되거나 커버가 깨진 콘센트는 새것으로 교체하고, 먼지가 낀 곳은 깨끗하게 솔로 털어낸다. 가전제품의 경우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자.

제습기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집안에서 빨래를 빨리 말리기 위해 제습기를 사용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춰야 한다. 빨래에서 떨어진 물로 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 위에 물기가 있는 물건을 올리면 공기 배출구가 막혀 내부 온도가 올라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기로 인한 누전의 우려도 있다.

건조한 날씨 탓에 꺼내 놓는 가습기 사용 시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제품이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고장이 나거나 심한 경우 감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주변에 콘센트나 전선을 최대한 멀리 두고,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이사가 잦은 봄은 가스 사고도 증가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602건으로 6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용 한 가스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가스의 불꽃이 파란색 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불꽃이 붉은 색이라면 연소 효율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이사를 할 경우엔 최소 3일 전에 가스막음 조치를 신청해 가스 누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봄 나들이가 많은 요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온도로 인한 가스 폭발, 가스 누수와 같은 안전 사고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으니.

봄철 안전을 위한 흠방역 노하우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도 봄철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집에서도 살균과 방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대한보건협회는 집에서도 지킬 수 있는 흠방역 생활수칙을 소개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권장하고 있다. 먼저 외출 후 돌아온 뒤에는 현관에서부터 섬유 향균 제품을 뿌려 옷 속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자. 하루에 3번은 10분 쯤 환기를 하고, 섬유 향균 제품으로 패브릭 가구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주 손이 닿는 문 손잡이나 휴대폰 등은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자. 이때 소독제 사용 후 10분이 지난 뒤 청소를 해야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하니 바로 닦아내지 말 것.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건조할수록 바이러스가 멀리 퍼지고 생존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건조한 환절기에 적절한 습도 유지는 환절기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반드시 체크하자. ☺

* 두근 DO GOOD에 참여해 주세요~

매호마다 행네포털에서 <우리가족> '두근 DO GOOD' 기사를 확인하시고 캠페인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 중 선정을 통해 캠페인 참여 물품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우리가족은 편집실에 간단한 후기 작성 및 사진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봄맞이 주변 환경 정돈



에어컨 실외기도 점검이 필요하다. 봄맞이 청소를 하면서 에어컨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하지만 실외기를 점검하는 일은 드물다. 실외기는 에어컨 사용 시에 열을 내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에 온도가 높아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외기와 벽체 사이에 낙엽과 같은 이물질 제거하고 벽체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전원선도 단일 전선으로 설치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실외기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살충제나 라벨 제거용 스프레이는 항상 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높아진 온도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의 화재 시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 가스형 스프레이는 항상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기르자.

엄마와 방 정리

글. 삼성로지점 임지현 계장

조용한 주말 아침 느낌이 일어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린다. 엄마가 요즘 내 방 침대가 좋다며 들어와서는 침대에 걸터앉아 방을 훑 둘러보신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시작되는 잔소리! 서랍 속에 꼭꼭 숨겨둔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손수 꺼내 보시며 버리라고 하신다. 오랜만이었던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왜 들어오셨냐며 툭툭대지만, 불법 점유자를 쫓을 핑계가 없어 일단 시키는 대로 정리를 해본다. 내가 정리하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방을 둘러보시던 엄마의 한 마디.

“책장에 꽂힌 책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있네! 저 책은 중학교 때 사주었더니 몇 번 읽고 읽었다고 이야기했었고 이 책은 수험생활할 때 읽었던 책이잖아~”

시간이 지나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책장 속 책들의 의미를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다. 생각해 보면 엄마는 종종 나조차 잊고 있었던 생각과 고민을 기억하고 있어 나를 놀라게 했다.

작년부터 ‘나를 알아가기’는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나와 마주하는 100일 백문백답’ 프로젝트에 참여해 매일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갖기도 하고, 책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도 했었다. 독립적인 내 모습이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엄마와의 관계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엄마와 저녁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 나를 가장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시시콜콜한 고민부터 삶의 방향까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틈에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간다. 엄마가 기억하는 어린 나의 모습에서 든든한 지지를 얻어오기도 하고, 엄마가 생각해왔던 나의 모습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도 한다.

어느 모녀처럼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다가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맞추어 나간다. 결국 나라는 존재도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씩 정리되어 간다. 엄마는 모든 가구를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떠나셨다. 엄마가 앉아 계셨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둘러보니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안 닿아있는 곳이 없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만의 방이지만 엄마의 흔적들은 계속 남아있겠지. 잘 가꾸어 두었다가 다음번에는 내가 먼저 방문을 열고 초대해드려야겠다. ☺

함께 만드는 우리 가족

애독자 퀴즈

이번 호 행내보를 꼼꼼히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코너! 정답을 <우리가족> 웹진 '독자후기'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해 이르는 말은?
(P32~35 '여행 좋아' 코너를 확인하세요.)

① 주택 ② 양옥 ③ 아파트 ④ 한옥

알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우리가족> 소중한 시간을 내어 행내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스페셜리포트 설문조사와 두근 DO GOOD, 함께 꾸는 DREAM(원데이클래스)를 신청해 보세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참여 KIT, 원데이클래스 제공 등 <우리가족>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

② 잇몸

당첨을 축하합니다!

2021년 3월호

- 광희동금융센터 고주현 과장
- 포스코금융센터 김기범 차장
- 여의도금융센터 김예담 계장 (가족 김미담)
- 영업추진부 박준만 대리
- 군산금융센터 원지숙 주임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은행 행내보인 <우리가족>을 웹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우리가족> 구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족>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 제호 왼쪽 옆에 있는 ≡ (세줄)을 터치하면 웹진에서 독자후기를 남길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더 나은 <우리가족>을 위해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